

‘상큼한 비타민C 지상낙원’...

고흥유자축제 팡파르

오늘부터 나흘간 한동리 일원 ‘11월! 고흥은 유자토피아’ 주제 드론·불꽃쇼·유자밭 삼겹살 파티·고흥9미 등 즐길거리 ‘풍성’

국내 최대 유자 주산지인 고흥군이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제4회 고흥유자축제를 개최한다.

6일 고흥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11월! 고흥은 비타민C 유자토피아’라는 슬로건 아래, 축제장을 ‘지상낙원’으로 구성해 유자 향, 색, 맛, 소리, 감각 등을 주제로 한 4개의 이상향(유토피아) 공간을 연출하게 된다.

이 공간은 지(地)-유자밭, 상(嘗)-먹거리, 낙(樂)-공연, 원(園)-힐링 동산으로 구성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KBC

개막식 축하공연, 드론쇼, 불꽃쇼, 유자행진(퍼레이드) 등 화려한 볼거리가 마련되며, 유자 테마파크, 향토음식관, 유자차 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유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유자전시관, 오감을 자극하는 유자밭 포토존, 황금빛 조명이 빛나는 유자길 터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 늦은 오후시간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예정이다.

총 상금 1천500만원을 내건 유자비타민 전국 노래교실 경연대회와 유자밭에서 즐거움을 더해줄 전국사생대회, 유



고흥군이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서 제4회 고흥유자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주무대 및 고흥읍내에서 진행된 고흥유자 퍼레이드 모습. <고흥군 제공>

자밭에서 펼쳐지는 유자막걸리&삼겹살 파티 등도 예정돼 있어 가을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이미 미식 여행가들 사이에는 유명한 여행 코스로 자리 잡은 ‘고흥유자축제’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로 가득 차

있지만,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어느 축제에서나 파는 뻥한 음식’이다.

여행의 묘미는 그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인데, 어느 지역 축제에 가더라도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가득하지만 고흥의 축제는 다르다. 고흥의 청정 농수산물로 만든 ‘고흥 9미’를 한자리에서 저렴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고흥 9미 음식 페스티벌’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먼저 ▲냄새부터 침샘을 자극하는 숯불구이 생선 ▲가을이면 꼭 먹어봐야 하는 전어구이와 전어회무침 ▲고소한 맛이 일품인 삼치회와 삼치탕수육 ▲고흥의 자랑 바지락 깻쟁이 등 고흥유자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

을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고흥유자축제’에 없는 나머지만 가지는 바로 ‘바가지요금’이다. 축제장에서 ▲장어탕 백반(1만원) ▲숯불생선구이 백반(1만2천원) ▲서대회무침, 간자회무침, 전어회무침, 바지락초무침(각 1만5천원) ▲전어구이, 장어구이, 막돔(금풍생이)구이(각 1만5천원) ▲바지락 깻쟁이 백반, 삼치회, 삼치유자탕수(각 1만5천원) 등 고흥의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제4회 고흥유자축제는 유자를 매개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고흥을 방문해 유자의 향기를 가득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최복환 기자>

순천 공영자전거 ‘온누리’ 이용자 대폭 증가

‘대자보’ 도시 실현...이용객 전년비 43% ↑ ·3시간 무료

순천시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환경) 도시 건설을 위해 공영자전거 ‘온누리(사진)’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공영자전거 ‘온누리’를 지난 10월부터 운영을 재개하며, 일일 이용요금 3시간 무료화

를 도입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일 평균 300명 이상이 회원가입을 했으며 총 1만8천900여 명이 이용해 지난해 월 평균 대비 이용객이 43% 증가했다.

도입 15년을 맞은 ‘온누리’ 공영자전거는 중·단거리 이동의 핵심 교통수단

으로 자리 잡아 왔으나 불편한 이용 방법으로 인해 이용자 감소 문제를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 4억6천여만원을 투입, 공영자전거 400대를 전면 수리하고 GPS, QR코드 및 전용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차세대 대여·반납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시에는 대중교통과 연계된 50개소의 자전거 대여소가 설치돼 총 400대의 온누리 자전거가 이용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대여소가 자전거를 각각 100개소, 600대로 확대될 계획이다.

특히 버스승강장과 인접한 자전거 대여소 설치 기준을 마련해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온누리 자전거가 근거리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환경에서 사람이 중심인 최상의 친화 도시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정기 기자



광양시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전면 시행

내년부터...운행 지연·사고 예방과 공차 비용 절감 효과

광양시는 6일 “2025년 1월1일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에서 현금 사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현금 승차 비율이 2022년 5.5%, 2023년 3.5%, 2024년 2.2%로 해마다 줄고 있다. 광양시는 현금 지불로 인한 운행 지연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금 정산을 위한 공차운행 비용을 절감

하기 위해 2025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제도가 시행되면 버스 요금을 교통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광양시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 시행 이후에도 현금을 사용하려는 승객들이 있어 제도 정착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계 부서에서는 대안으로 모바일교통카드(QR코드 구비) 발급 ▲시내버스 내 충전 교통카드 구비 ▲요금납부 안내서를 통한 계좌이체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민숙 교통과장은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정책 시행 전 대비 홍보를 통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도 시행 후에는 시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화순적벽버스투어, 관람객 2만명 돌파

현장 매표도 가능...내달 1일 운영 종료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2024 화순적벽버스투어’가 적벽서를 관람객으로만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했다.

6일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최근 화순적벽을 찾아온 2만번째 관람객 환영 행사를 펼쳤다.

영예의 주인공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화순적벽을 찾아온 이복순 씨로 뜻밖의 행운을 잡은 2만번째 관람객에게는 화순적벽버스투어 홍보물인 트레블파우치, 트레블세면키트, 보냉백 등의 상품이 증정됐다. <사진>

‘2024 화순적벽버스투어’는 적벽서를(현장 예매)과 적벽투어(인터넷 예약)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3월19일부터 운영된 적벽버스투어는 올해 (재)화순

군문화관광재단이 위탁·운영을 맡아 다양한 고객 프로모션 행사와 대도시 관광박람회 등에 참여, 화순적벽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적벽서들은 사전 예약 없이 현장 매

표가 가능하고, 매주 화·목·금·토·일(월·수 휴무) 운영한다. 적벽투어는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매주 토·일 이용할 수 있다.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화순적벽버스투어는 앞으로 약 한 달 후(12월 1일) 운영 종료에 예정돼 있다”며 “올해 가을 단풍이 물든 화순적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담양대나무숲 속 만개한 가을꽃 ‘쑥부쟁이’ 청량한 가을을 맞아 한국대나무박물관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의 방문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물관 대숲에 만개한 쑥부쟁이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1998년 개관 이후 꾸준한 주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는 한국대나무박물관은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해 대나무 죽종장, 테마공원 등 사계절 꽃피는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8-27일 빈집 등 주거형태 파악

담양군은 6일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2만1천여 가구(빈집 포함)를 대상으로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주택기초조사는 내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을 위해 전국의 모든 거처와 가구의 기초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자체가 협력해 진행하는 대규모 국가통계 조사다.

이번 조사는 관내 2만1천여 가구 명부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항목은 주소, 거주 종류, 빈집 여부, 옥탑 및 (반)지하 여부, 총방수, 주거 시설, 농림어업 여부 등 14개 항목이다.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로 작성하는 현장 조사와 콜센터 통화를 통한 전화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조사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

송경현 행정과 서무팀팀장은 “국가통계의 기초 정보를 파악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적극적인 응답을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구례군, 장애인·비장애인의 벽 허문다

장애인 인식 개선 문화예술 교육

구례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기 위해 색다른 시도에 나섰다.

6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반적인 강의식 교육

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공연과 강의를 접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애인·비장애인 혼성 예술단 ‘브릿지온’ 앙상블의 공연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장애인 2명과 비장애인 1명으로 구성된 브릿지온 앙상블은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이며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이어서 정규대 밀알문화예술센터장

의 강의는 장애인 예술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조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처음에는 단순한 교육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공연을 보니 우리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고 밝혔다.

구례군 관계자는 “예술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장성군, 첨단3지구 개발 전담반 구성

부군수 등 21명...행정지원과 시설 운영·관리계획 수립

장성군은 6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담반(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장성군 진원·남면과 광주 비아동 일원에 인공지, 첨단의료 등 미래지향적 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광주AI직접단지를 중심으로 제조, 연구 및 주거시

설용지 등이 들어선다.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맡았으며 진원면 산동리, 학림리, 남면 삼태리, 월정리 등 대상부지의 70%가 장성지역이다.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으로 9천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장성군 첨단3지구 전담반’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과 기반·공공시설 운영·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부군수와 담당팀장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으며, 광주도시공사로부터 기반·공공시설을 인수받을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곽영호 장성부군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해 첨단3지구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문태 기자